

목 차

1. 산다는 것

- 1-1. 與孟東野書 / 1
- 1-2. 與于襄陽書 / 3
- 1-3. 送董邵南序 / 5

2. 글을 짓는 일

- 2-1. 答李翊書 / 6
- 2-2. 答劉正夫書 / 9
- 2-3. 貓相乳 / 11

3. 인간에 대한 탐구

- 3-1. 原性 / 13
- 3-2. 原毀 / 16
- 3-3. 圻者王承福傳 / 19

4. 진리란 무엇인가?

- 4-1. 答張籍書 / 22
- 4-2. 讀荀子 / 26
- 4-3. 送王秀才序 / 28
- 4-4. 論佛骨表 / 30

5. 장소, 그 의미의 기록

- 5-1. 處州孔子廟碑 / 34
- 5-2. 黃陵廟碑 / 36
- 5-3. 燕喜亭記 / 39

6. 가장 긴 이별

- 6-1. 祭十二郎文 / 41
- 6-2. 祭柳子厚文 / 46
- 6-3. 柳子厚墓誌銘 / 48

1. 산다는 것

1-1 與孟東野書

唐 德宗 貞元 15년(79)에 宣武節度使 董晉이 病死하자, 汴州의 군대가 반란을 일으켰다. 韓愈가 그곳을 빠져나와 徐州로 가서 徐泗濠節度使 張建封에게 의탁하니, 장건봉이 조정에 奏請하여 한유를 節度推官으로 삼았다. 이 편지는 한유가 절도추관이 된 이듬해에 쓴 것이다. 孟東野는 孟郊이다. 한유보다 17년 年上으로 友誼가 매우 깊은 詩友였다. 많은 詩를 唱和하였는데, 한유의 文集에 실린 聯句 11首 중에 9首는 그와 唱和한 詩이다. 맹교가 죽은 뒤에 張籍은 ‘貞曜先生’이란 私諡를 올리고, 한유는 〈貞曜先生墓誌〉를 지었다.

兩情淒切이라

與足下別久矣라 以吾心之思足下^{컨대} 知足下懸懸於吾也나 各以事牽^{하야} 不可合併^{하나라} 其於人人^에 非足下之爲見而日與之處^{하니} 足下知吾心樂否也아 吾言之而聽者誰歟며 吾唱之而和者誰歟아 言無聽也^{하고} 唱無和也^{하며} 獨行而無徒也^{하고} 是非無所與同也^{하니} 足下知吾心樂否也아

足下才高氣清^{하야} 行古道處今世^{니라} 無田而衣食^{호되} 事親左右無違^{하니} 足下之用心勤矣며 足下之處身勞且苦矣라 混混與世相濁^{이로되} 獨其心은 追古人而從之^{하니} 足

下之道가 其使吾悲也로라

去年春에 脫汴州之亂하야 幸不死나 無所於歸하야 遂來于
此하나라 主人與吾有故하야 哀其窮하야 居吾于符離睢上하
나라 及秋將辭去나 因被留以職事하야 默默在此가 行一年
矣라 到今年秋하야 聊復辭去호리라 江湖는 余樂也니 與足下終이
면 幸矣리라 李習之娶吾亡兄之女하야 期在後月하니 朝夕
當來此리라 張籍在和州居喪하니 家甚貧이라 恐足下不知
라 故具此白하노니 冀足下一來相視也나라 自彼至此雖遠
이나 要皆舟行可至니 速圖之하라 吾之望也로라

1-2 與于襄陽書

이 편지는 貞元 18년(80 가을에 쓴 것이다. 이때 韓愈는 國子監 四門博士였으나, 벼슬이 낮고 봉록이 박하여 생활이 곤궁하였다. 그러므로 于襄陽에게 이 편지를 올려 도움을 청한 것이다. 우양양은 于頔이다. 우적은 이때 工部尙書로 山南節度使로 나아가 襄陽에 머물고 있었다.

前半瑰瑋游泳하고 後半婉變淒切이라

七月三日에 將仕郎守國子四門博士韓愈는 謹奉書尙書閣下하노라 士之能享大名顯當世者는 莫不有先達之士負天下之望者爲之前焉이요 士之能垂休光照後世者도 亦莫不有後進之士負天下之望者爲之後焉이라 莫爲之前이면 雖美而不彰하고 莫爲之後면 雖盛而不傳이니 是二人者는 未始不相須也라 然而千百載에 乃一相遇焉이니 豈上之人無可援하고 下之人無可推歟아 何其相須之殷而相遇之疎也오 其故는 在下之人負其能하야 不肯諂其上하고 上之人負其位하야 不肯顧其下_르 새니라 故高材多戚戚之窮하고 盛位無赫赫之光하니 是二人者之所爲皆過也라 未嘗干之하니 不可謂上無其人이요 未嘗求之하니 不可謂下無其人이라 愈之誦此言久矣나 未嘗敢以聞於人이라

側聞閣下抱不世之材_로 特立而獨行_{하고} 道方而事實_{하며} 卷舒
 不隨乎時_{하고} 文武惟其所用_{이라하니} 豈愈所謂其人哉_아 抑
 未聞後進之士有遇知於左右_{하야} 獲禮於門下者_{하니} 豈
 求之而未得耶_아 將志存乎立功_{하고} 而事專乎報主_{하야}
 雖遇其人_{이나} 未暇禮耶_아 何其宜聞而久不聞也_오 愈雖不
 才_나 其自處不敢後於恒人_{이라} 閣下將求之而未得歟_아 古
 人有言_{하니} 請自隗始_{라하니라}

愈今者惟朝夕芻米僕賃之資是急_{하니} 不過費閣下一朝
 之享而足也_라 如曰 吾志存乎立功_{하고} 而事專乎報主_하
 야 雖遇其人_{이라도} 未暇禮焉_{이라하면} 則非愈之所敢知也_로
 라 世之齷齷者旣不足以語之_{어니와} 磊落奇偉之人_이 又
 不能聽焉_{이면} 則信乎命之窮也_라 謹獻舊所爲文一十八
 首_{하노니} 如賜覽觀_{이면} 亦足以知其志之所存_{이리라}

1-3 送董邵南序

이 序는 韓愈가 四門博士로 있던 貞元 19년(80)에, 進士試에 누차 낙방하고서 우울하게 고향으로 돌아가는 벗을 위로하기 위해 지은 것이다. 董邵南은 壽州 安豐 사람으로 韓愈와 交分이 두터웠다.

文僅百餘字나 而感慨古今이 若與燕趙豪雋之士로
相爲叱咤嗚咽하며 其間一涕一笑하니 其味不窮이라
昌黎序文當屬第一首라

燕, 趙古稱多感慨悲歌之士하니라 董生舉進士나 連不得
志於有司하야 懷抱利器하고 鬱鬱適茲土하니 吾知其必有
合也라 董生勉乎哉_{ㄴ저}

夫以子之不遇時로 苟慕義彊仁者皆愛惜焉이어든 矧燕趙
之士出乎其性者哉아 然吾嘗聞風俗與化移易이라하니 吾
惡_(오)知其今不異於古所云耶아 聊以吾子之行卜之也호
리라 董生勉乎哉_{ㄴ저}

吾因子有所感矣로니 爲我弔望諸君之墓하고 而觀於其
市復_(부)有昔時屠狗者乎_{ㄴ저} 爲我謝曰 明天子在上하시니
可以出而仕矣라하라

2. 글을 짓는 일

2-1 答李翊書

李翊은 韓愈의 추천으로 진사과에 합격한 韓門弟子의 한 사람이다. 貞元 18년(80)에 한유가 副考官 陸參에게 편지를 보내어 이익 등 열 사람을 추천한 일이 있는데, 그해 科擧에 이익이 進士科에 급제하였다. 본서 권3에 실린 〈與 祠部陸員外書〉에 자세히 보인다. 이 편지는 이익이 진사과에 급제하기 1년 전인 정원 17년에 보낸 것이다.

要窺作家爲文이면 必如此立根基라 今人乃欲以句字
求之하니 何哉리오

六月二十六日에 愈白李生足下하노라 生之書辭甚高로되
而其問何下而恭也오 能如是면 誰不欲告生以其道리오
道德之歸也有日矣은 況其外之文乎아 抑愈所謂望孔
子之門墻而不入于其宮者니 焉足以知是且非邪아 雖
然이나 不可不爲生言之로라

生所謂立言者是也니 生所爲者與所期者甚似而幾矣니라
抑不知生之志蘄勝於人而取於人耶아 將蘄至於古之立言
者邪아 蘄勝於人而取於人이면 則固勝於人而可取於人矣
니라 將蘄至於古之立言者면 則無望其速成하고 無誘於勢
利하며 養其根而竢其實하고 加其膏而希其光하라 根之茂者

는 其實遂^{하고} 膏之沃者^는 其光曄^{하며} 仁義之人^은 其言藹如也^{니라}

抑又有難者^{하니} 愈之所爲^가 不自知其至猶未也^{니라} 雖然^이
나 學之二十餘年矣^라 始者^에 非三代兩漢之書不敢觀^{하고}
非聖人之志不敢存^{하야} 處若忘^{하고} 行若遺^{하며} 儼乎其若思^{하고}
茫乎其若迷^{로라} 當其取於心而注於手也^에 惟陳言
之務去^{하니} 夏夏乎其難哉^{로라} 其觀於人^에 不知其非笑之
爲非笑也^{하니라} 如是者亦有年^{이로되} 猶不改然後^에 識古書
之正僞^와 與雖正而不至焉者^가 昭昭然白黑分矣^{로라} 而務
去之^{코야} 乃徐有得也^{호라} 當其取於心而注於手也^에 汨汨
然來矣^요 其觀於人也^에 笑之則以爲喜^{하고} 譽之則以爲憂^{하니}
以其猶有人之說^(열)者存也^{라 새니라} 如是者亦有年然後^에
浩乎其沛然矣^{니라} 吾又懼其雜也^{하야} 迎而距之^{하고} 平
心而察之^{하야} 其皆醇也然後^에 肆焉^{1이로라} 雖然^{이나} 不可
以不養也^{라 새} 行之乎仁義之途^{하고} 游之乎詩書之源^{하야}
無迷其途^{하고} 無絕其源^{하야} 終吾身而已矣^{니라}

氣^는 水也^요 言^은 浮物也^니 水大而物之浮者大小畢浮^{니라}

氣之與言도 猶是也^{하야} 氣盛則言之短長與聲之高下者
 皆宜^{니라} 雖如是^{라도} 其敢自謂幾於成乎^아 雖幾於成^{이라}
 도 其用於人也奚取焉^{이리오} 雖然^{이나} 待用於人者^는 其肖
 於器邪^아 用與舍屬諸人^{이니라} 君子則不然^{하야} 處心有道
 하고 行己有方^{하야} 用則施諸人^{하고} 舍則傳諸其徒^{하고} 垂
 諸文而爲後世法^{이니라} 如是者^나 其亦足樂乎^아 其無足
 樂也^아

有志乎古者希矣^나 志乎古^면 必遺乎今^{일새니라} 吾誠樂而
 悲之^나 亟稱其人^은 所以勸之^요 非敢褒其可褒而貶其可貶
 也^{니라} 問於愈者多矣^나 念生之言^은 不志乎利^{일새} 聊相爲言
 之^{하노라}

唐荊川曰 此文當看抑揚轉換處^라 纍纍然如貫珠^는 其
 此文之謂乎^나 저

篇中云 仁義之人^은 其言藹如也^{라하니} 卽此中間又隔
 許多歲月階級^{이라} 只因昌黎特因文以見道者^라 故猶
 影響^{이니} 非心中工夫實景所道故也^라

2-2 答劉正夫書

이 편지는 韓愈가 다시 國子博士의 職任을 맡은 元和 7년(81)에 보낸 것이다. 이때 한유의 나이 45세였다. 劉正夫는 州縣의 천거를 받고 서울로 올라와 進士試에 應試한 자이다. 이때 그의 아버지 劉伯芻가 給事中이었다.

韓文公教人作文에 大意要自樹立과 不尋常과 不取悅於今世라 所謂能自樹立하고 不因循等이 卽公本來面目이라

愈白進士劉君足下하노라 辱戕하니 教以所不及이라 旣荷厚賜하고 且愧其誠然하니 幸甚幸甚이라

凡舉進士者가 於先進之門에 何所不往이리오 先進之於後輩에 苟見其至면 寧可以不答其意耶아 來者則接之는 舉城士大夫莫不皆然이로되 而愈不幸獨有接後輩名하니 名之所存이 謗之所歸也라

有來問者면 不敢不以誠答이로라 或問호되 爲文宜何師오하면 必謹對曰 宜師古聖賢人이라하고 曰 古聖賢人所爲書具存이나 辭皆不同하니 宜何師오하면 必謹對曰 師其意하고 不師其辭라호라 又問曰 文宜易宜難이면 必謹對曰 無難易하고 惟其是爾라호라 如是而已요 非固開其爲此하고 而禁其

爲彼也_{로라}

夫百物朝夕所見者_는 人皆不注視也_{로되} 及觀其異者_면
 則共觀而言之_{니라} 夫文豈異於是乎_{리오} 漢朝人莫不能
 爲文_{이로되} 獨司馬相如太史公劉向揚雄爲之最_{하니} 然則
 用功深者_는 其收名也遠_{이나} 若皆與世沈浮_{하고} 不自樹
 立_{이면} 雖不爲當時所怪_{라도} 亦必無後世之傳也_{리라} 足下
 家中百物_은 皆賴而用也_나 然其所珍愛者_는 必非常物_이
 라 夫君子之於文_에 豈異於是乎_{리오} 今後進之爲文_에 能
 深探而力取之_{하야} 以古聖賢人爲法者_가 雖未必皆是_나
 要若有司馬相如太史公劉向揚雄之徒出_{이면} 必自於此_요
 不自於循常之徒也_{리라} 若聖人之道_를 不用文則已_{어니와} 用
 則必尙其能者_{니라} 能者_는 非他_라 能自樹立_{하고} 不因循
 者是也_{니라} 有文字來_로 誰不爲文_{이리오} 然其存於今者_는
 必其能者也_라 顧常以此爲說耳_{로라}

愈於足下_에 忝同道而先進者_요 又常從遊於賢尊給事_하
 니라 旣辱厚賜_{하니} 又安得不進其所有以爲答也_{리오} 足下
 以爲何如_오 愈白_{하노라}

2-3 貓相乳

한유가 20세 때인 貞元 3년(78)에 進士科에 응시하기 위해 長安에 와서 머무를 적에, 從兄 韓弇의 벗인 北平王 馬燧를 찾아보니, 마수는 한유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고, 또 두 아들에게 명하여 열정적으로 한유를 접대하게 하니, 한유는 마침내 馬燧府의 上客이 되었다. 이 글은 이때에 지은 것이다.

以事之小者로 而議論關係大體라

司徒北平王家貓有生子同日者_{러니} 其一死焉_{하다} 有二子飲於死母_나 母且死_{하니} 其鳴咿咿_{하다} 其一方乳其子_라 가 若聞之_{하고} 起而若聽之_{러니} 走而若救之_{하니라} 銜其一置于其棲_{하고} 又往如之_{하고는} 反而乳之若其子然_{하니라} 噫_라 亦異之大者也_{로다}

夫貓_는 人畜也_나 非性於仁義者也_라 其感於所畜者乎哉_{니저} 北平王牧民以康_{하고} 伐罪以平_{하며} 理陰陽以得其宜_{하니라} 國事旣畢_에 家道乃行_{하야} 父父子子_{하고} 兄兄弟弟_{하야} 雍雍如也_{하고} 愉愉如也_{하니라} 視外猶視中_{하고} 一家猶一人_{이라} 夫如是_{하니} 其所感應召致_를 其亦可知矣_라 易曰 信及豚魚_{라하니} 非此類也夫_아

愈時獲幸於北平王_{하다} 客有問王之德者_{어늘} 愈以是對_하

니라 客曰 夫祿位貴富는 人之所大欲也_{로되} 得之之難이
未若持之之難也_라 得之於功_{이라도} 或失於德_{하며} 得之於
身_{이라도} 或失於子孫_{이어늘} 今夫功德如是_{하고} 祥祉如是_하
니 其善持之也可知已_{로다} 旣已_에 因敍之爲_{貓相乳說云}하
노라

3. 인간에 대한 탐구

3-1 原性

〈原性〉은 인간 본성의 근원을 규명한 것이다. 孟子의 性善說, 荀子の 性惡說, 揚雄의 性善惡混在說을 취하고 孔子의 말씀으로 절충하여 사람의 본성을 上·中·下의 세 등급으로 나누었다.

性之旨는 孟氏沒而周程始能言之라 昌黎原不見得일새 特按三家之言而剖析之如此라 然於天命之原엔 已隔一二層矣라

性也者는 與生俱生也요 情也者는 接於物而生也라 性之品有三이나 而其所以爲性者五며 情之品有三이나 而其所以爲情者七이라

曰何也요 曰性之品有上中下三하니 上焉者는 善焉而已矣요 中焉者는 可導而上下也요 下焉者는 惡焉而已矣라 其所以爲性者五니 曰仁, 曰禮, 曰信, 曰義, 曰智라 上焉者之於五也에 主於一而行於四하고 中焉者之於五也에 一不少有焉則少反焉하야 其於四也混하고 下焉者之於五也에 反於一而悖於四라 性之於情視其品이니 情之品有上中下三이라 其所以爲情者七이니 曰喜, 曰怒, 曰

哀, 曰懼, 曰愛, 曰惡, 曰欲이라 上焉者之於七也에 動
而處其中하고 中焉者之於七也에 有所甚有所亡이라 然
而求合其中者也라 下焉者之於七也에 亡與甚하야 直情
而行者也니 情之於性視其品이라

孟子之言性曰 人之性善이라하고 荀子之言性曰 人之性
惡이라하고 楊子之言性曰 人之性善惡混이라하니라 夫始善
而進惡과 與始惡而進善과 與始也混而今也善惡은 皆舉
其中而遺其上下者也니 得其一而失其二者也라 叔魚之
生也에 其母視之하고 知其必以賄死하며 楊食我之生也에
叔向之母聞其號也하고 知必滅其宗하며 越椒之生也에 子
文以爲大戚하야 知若敖氏之鬼不食也하니 人之性果善
乎아 后稷之生也에 其母無災하고 其始匍匐也에 則岐岐
然嶷嶷然하며 文王之在母也에 母不憂하고 旣生也에 傅不勤
하고 旣學也에 師不煩하니 人之性果惡乎아 堯之朱와 舜之
均과 文王之管蔡는 習非不善也로되 而卒爲姦하고 瞽瞍之
舜과 鯀之禹는 習非不惡也로되 而卒爲聖하니 人之性善惡
果混乎아 故曰三子之言性也는 舉其中而遺其上下者
也니 得其一而失其二者也라

曰 然則性之上下者_는 其終不可移乎_아 曰 上之性_은 就
 學而愈明_{하고} 下之性_은 畏威而寡罪_라 是故上者可教而
 下者可制也_니 其品則孔子謂不移也_라 曰 今之言性者
 異於此_는 何也_오 曰 今之言者_는 雜佛老而言也_라 雜佛
 老而言也者_가 奚言而不異_{리오}

3-2 原毀

훼방이 생겨나게 된 원인을 논한 글이다. 옛날의 군자는 자신에 대한 요구는 까다롭고 남에 대한 요구는 관대했던 반면, 오늘날의 군자는 자신에 대한 요구는 관대하고 남에 대한 요구는 까다로우니, 이렇게 자신을 대하는 태도와 남을 대하는 태도가 상이한 데에서 훼방이 생겨나게 됨을 논증하였다.

此篇은 八大比라 秦漢來故無此調러니 昌黎公創之하
니라 然感慨古今之間에 因而摹寫人情하고 曲鬯骨裏하
니 文之至者라

古之君子는 其責己也重以周하고 其待人也輕以約하니
重以周라 故不怠하고 輕以約이라 故人樂爲善하니라 聞古
之人有舜者하니 其爲人也仁義人也라하고 求其所以爲舜
者하야 責於己曰 彼도 人也요 予도 人也라 彼能是어늘 而我乃
不能是아하고 早夜以思하야 去其不如舜者하고 就其如舜
者하니라 聞古之人有周公者하니 其爲人也多才與藝人也
라하고 求其所以爲周公者하야 責於己曰 彼도 人也요 予도
人也어늘 彼能是로되 而我乃不能是아하고 早夜以思하야 去
其不如周公者하고 就其如周公者하니라 舜은 大聖人也라
後世無及焉이요 周公도 大聖人也라 後世無及焉이로되 是
人也는 乃曰 不如舜하고 不如周公은 吾之病也라하니 是

不亦責於身者重以周乎아 其於人也에 曰 彼人也能有是하니 是足爲良人矣요 能善是하니 是足爲藝人矣라 取其一하고 不責其二하며 卽其新하고 不究其舊하야 恐恐然惟懼其人之不得爲善之利하니라 一善은 易(이)修也요 一藝는 易(이)能也로되 其於人也에 乃曰 能有是하니 是亦足矣라 하고 曰能善是하니 是亦足矣라하니 不亦待於人者輕以約乎아

今之君子則不然하야 其責人也詳하고 其待己也廉라 詳이라 故人難於爲善하고 廉이라 故自取也少니라 己未有善로되 曰 我善是하니 是亦足矣라하고 己未有能이로되 曰 我能是하니 是亦足矣라하야 外以欺於人하고 內以欺於心하야 未少有得而止矣니 不亦待其身者已廉乎아 其於人也에 曰 彼雖能是나 其人不足稱也요 彼雖善是나 其用不足稱也라 하야 舉其一하고 不計其十하며 究其舊하고 不圖其新하야 恐恐然惟懼其人之有聞也하니 是不亦責於人者已詳乎아 夫是之謂不以衆人待其身이요 而以聖人望於人이니 吾未見其尊己也로라

雖然이나 爲是者有本有原하니 怠與忌之謂也라 怠者不能修하고 而忌者畏人修라 吾(嘗)[常]試之矣로라 嘗試語於衆曰 某良士요 某良士라하니 其應者는 必其人之與也요 不然이면 則其所疎遠하야 不與同其利者也요 不然이면 則其畏也라 不若是면 强者必怒於言하고 懦者必怒於色矣라 又嘗語於衆曰 某非良士요 某非良士라하니 其不應者는 必其人之與也요 不然이면 則其所疎遠하야 不與同其利者也요 不然이면 則其畏也라 不若是면 强者必說(열)於言하고 懦者必說(열)於色矣라 是故事修而謗興하고 德高而毀來하니 嗚呼라 士之處此世而望名譽之光道德之行이 難已로다 將有作於上者가 得吾說而存之면 其國家可幾而理歟니저

3-3 巧者王承福傳

제목으로 보면 미장이인 王承福이라는 인물에 대한 전기이지만, 실제로는 왕승복의 입을 빌려 당시의 세태를 풍자하였다.

以議論行敘事나 然非韓文之佳者라

巧之爲技는 賤且勞者也라 有業之하니 其色若自得者요
 聽其言하니 約而盡이라 問之하니 王其姓이요 承福其名으로
 世爲京兆長安農夫러니 天寶之亂에 發人爲兵하야 持弓矢
 十三年에 有官勳이라 棄之來歸나 喪其土田하야 手鋤衣食
 이 餘三十年이라 舍于市之主人하야 而歸其屋食之當焉하
 고 視時屋食之貴賤하야 而上下其巧之傭以償之하고 有餘
 則以與道路之廢疾餓者焉하니라

又曰 粟은 稼而生者也요 若布與帛은 必蠶績而後成者
 也요 其他所以養生之具도 皆待人力而後完也나 吾皆賴
 之니라 然人不可徧爲하니 宜乎各致其能以相生也라 故君
 者는 理我所以生者也요 而百官者는 承君之化者也라 任有
 小大나 惟其所能이 若器皿焉이라 食焉而怠其事면 必有天
 殃이라 故吾不敢一日捨鋤以嬉하노라 夫鋤易(이)能하야 可力
 焉이요 又誠有功하야 取其直(치)나 雖勞無愧하야 吾心安焉

이라 夫力은 易(이)强而有功也요 心은 難强而有智也라 用力者使於人하고 用心者使人이 亦其宜也라 吾特擇其易(이)爲而無愧者取焉이라 嘻라 吾操鎡以入貴富之家有年矣라 有一至者焉에 又往過之면 則爲墟矣요 有再至三至者焉에 而往過之면 則爲墟矣라 問之其隣하니 或曰 噫라 刑戮也라하고 或曰 身旣死而其子孫不能有也라하고 或曰 死而歸之官也라하니라 吾以是觀之컨대 非所謂食焉怠其事하야 而得天殃者邪아 非强心以智而不足하야 不擇其才之稱否而冒之者邪아 非多行可愧하야 知其不可오도 而强爲之者邪아 將貴富難守어늘 薄功而厚饗之者邪아 抑豐悴有時하야 一去一來하야 而不可常者邪아 吾之心憫焉이라 是故擇其力之可能者行焉이로라 樂富貴而悲貧賤이 我豈異於人哉리오

又曰 功大者는 其所以自奉也博하야 妻與子皆養於我者也라 吾能薄而功小하니 不有之可也니라 又吾所謂勞力者어늘 若立吾家而力不足이면 則心又勞也니 一身而二任焉이면 雖聖者不可能也라하니라

愈始聞而惑之_나 又從而思之_{하니} 盖賢者也_요 盖所謂獨
 善其身者也_라 然吾有譏焉_은 謂其自爲也過多_{하고} 其爲
 人也過少_{하니} 其學楊朱之道者邪_아 楊之道_는 不肯拔我
 一毛而利天下_라 而夫人以有家爲勞心_{이라} 不肯一動
 其心_{하야} 以畜_(畜)其妻子_{하니} 其肯勞其心以爲人乎哉_아 雖
 然_{이나} 其賢於世之患不得之而患失之者_가 以濟其生之
 欲_{하야} 貪邪而亡道以喪其身者_론 其亦遠矣_라 又其言有
 可以警余者_라 故余爲之傳而自鑑焉_{하노라}

4. 진리란 무엇인가?

4-1 答張籍書

이 답서는 韓愈가 자신의 缺點을 지적한 張籍의 편지를 받고서 貞元 14년(78)에 보낸 것이다. 이때 한유의 나이 31세였다. 장적은 字가 文昌이다. 저명한 詩人으로 한유의 벗이면서 제자이기도 하다. 정원 14년에 한유가 汴州에 있을 때 孟郊의 소개로 장적과 서로 알게 되었는데, 장적은 한유를 매우 존경하며 한유에 대한 기대가 높았다. 그러므로 한유에게 편지를 보내어 한유의 네 가지 결점을 지적하였는데, 첫째는 孟子나 揚雄처럼 異端(老佛)을 배척하는 글을 짓지 않는 것이고, 둘째는 진실하지 않은 駁雜한 말이 많은 것이고, 셋째는 남과 토론할 때 心氣를 가라앉히지 못하는 것이고, 넷째는 도박을 좋아하는 것이다. 讀者의 이해를 돕기 위해 《韓文考異》〈答張籍書〉題下에 실린 장적의 편지를 소개한다. 그 편지는 다음과 같다.

古之胥는 教誨舉動言語가 無非相示以義요 非苟相
 諛悅而已니라 執事不以籍愚暗하고 時稱發其善하야
 教所不及하고 施誠相與하야 不間塞於他人之說하니
 是近於古人之道也니라 籍今不復以義면 是執竿而拒
 歡來者니 烏所謂承人而古人之道歟아 頃承論於執
 事하니 嘗以爲世俗陵靡하야 不及古昔은 蓋聖人之道
 廢弛之所爲也라하니라 宣尼沒後에 楊朱墨翟恢詭異
 說이 干惑人聽에 孟子作書而正之하니 聖人之道復存
 於世하니라 秦氏滅學하고 漢重以黃老之術教人하야 使
 人寢惑에 揚雄作法言而辯之하니 聖人之道猶明하니라

及漢衰末^{하야} 西域浮屠之法^이 入於中國^에 中國之人^이 世世譯而廣之^{하니} 黃老之術相沿而熾^{하야} 天下之言善者^가 惟二者而已^{니라} 昔者^에 聖人以天下生生之道曠^{으로} 乃物其金木水火土穀藥之用而厚之^{하고} 因人資善^{으로} 乃明乎仁義之德以教之^{하야} 裨人有常^{이라} 故治生相存而不殊^{하니라} 今天下資於生者^가 咸備聖人之器用^{이로되} 至於人情^{하야는} 則溺乎異學^{하야} 而不由乎聖人之道^{하야} 使君臣父子夫婦朋友之義沈於世^{하야} 而邦家繼亂^{하니} 固仁人之所痛^{이라} 自揚子雲作法言^{으로} 至今近千載^히 莫有言聖人之道者^요 言之者^는 惟執事焉耳^라 習俗者聞之^{하고} 徒推爲訾^{하니} 終無裨於教也^{니라} 執事聰明^{하야} 文章與孟子揚雄相若^{하니} 盍爲一說以興存聖人之道^{하야} 使時之人後之人^{으로} 知其去絕異學之所爲乎^아 曷可囂囂爲多言之徒哉^아 然欲舉聖人之道者^는 其身宜亦由之也^{어늘} 比見執事多尙駁雜無實之說^{하야} 使人陳之於前以爲歡^{하니} 此有以累於令德^{이라} 又商論之際^에 或不容人之短^{하야} 如任私尙勝者^{하니} 亦有所累也^{니라} 先王存六藝^는 自有常矣^{로되} 有德者不爲^{하야} 猶以爲損^{이어늘} 況爲博塞之戲與人爭財乎^아 君子固不爲也^{니라} 今執事爲之

하여 以廢棄時日하니 竊不識其然이로라 且執事言論文
 章은 不謬於古人이로되 今所爲는 或不出於世之守常
 者하니 竊未爲得也로라 願執事絕博塞之好하며 棄無
 實之言하고 宏廣以接天下士하여 嗣孟子揚雄之作하여
 辨楊墨老釋之說하여 使聖人之道로 復見於唐이면 豈
 不尙哉아 籍誠知之로되 以材識頑鈍하여 不敢竊居作
 者之位일새 所以咨於執事而爲之爾니라 若執事守章
 句之學하여 因循於時하고 置不朽之盛事면 與夫不知
 言으로 亦無以異矣리라 籍再拜하노라

籍所遺昌黎書甚當이로되 而昌黎答籍은 特氣不相下
 耳라

愈始者望見吾子於人人之中에 固有異焉이러니 及聆其音
 聲하고 接其辭氣하얀 則有願交之志하니라 因緣幸會하여 遂
 得所圖하니 豈惟吾子之不遺리오 抑僕之所遇有時焉耳라
 近者에 嘗有意吾子之闕焉無言은 意僕所以交之之道不至
 也러니 今乃大得所圖하니 脫然若沈痾去體하고 灑然若執熱
 者之濯清風也로라 然吾子所論에 排釋老不若著書라 囁囁
 多言은 徒相爲訾라하나 若僕之見은 則有異乎此也로라

夫所謂著書者는 義止於辭耳니 宣之於口와 書之於簡이
 何擇焉고 孟軻之書는 非軻自著라 軻旣沒에 其徒萬章公
 孫丑相與記軻所言焉耳니라 僕自得聖人之道而誦之로
 排前二家有年矣니 不知者以僕爲好辯也라호라 然從而
 化者亦有矣니 聞而疑者又有倍焉이라 頑然不入者는 親
 以言諭之라도 不入이니 則其觀吾書也라도 固將無得矣리
 라 爲此而止니 吾豈有愛於力乎哉아 然有一說하니 化當
 世莫若口요 傳來世莫若書라 又懼吾力之未至也로라 三十
 而立하고 四十而不惑하시니 吾於聖人旣過之라도 猶懼不及이
 어든 矧今未至하니 固有所未至耳니라 請待五六十然後爲
 之하니 冀其少過也니라

吾子又譏吾與人人爲無實駁雜之說하니 此吾所以爲戲
 耳라 比之酒色이면 不有間乎아 吾子譏之는 似同浴而譏
 裸裎也니라 若商論不能下氣는 或似有之하니 當更思而
 悔之耳로라 博塞之譏는 敢不承教아 其他는 俟相見하노라

薄晚에 須到公府하니 言不能盡이로라 愈再拜하노라

4-2 讀荀子

《荀子》는 春秋 때 趙나라 사람 荀況이 지은 書名이다. 《순자》를 읽고 난 뒤에 쓴 독후감이다. ‘讀’은 文體의 하나이다. 晉 張華의 《博物志》 卷4에 “賢者의 저술을 傳記·章句·解論·讀이라 한다.[賢者著述曰傳 日記 曰章句 曰解 曰論 曰讀]”란 말이 보인다.

昌黎病荀不醇^{하야} 而末引孔子一轉^{하고} 却安頓自家
方好^라

始吾讀孟軻書然後^에 知孔子之道尊^{하고} 聖人之道易^(이)
行^{하고} 王易^(이)王^{하고} 霸易^(이)霸也^{로라} 以爲孔子之徒沒^에
尊聖人者^는 孟氏而已^라 晚得楊雄書^{하고}는 益尊信孟氏^로
라 因雄書而孟氏益尊^{하니} 則雄者^도 亦聖人之徒歟^{니저}

聖人之道^가 不傳於世^{니라} 周之衰^에 好事者各以其說干
時君^{하니} 紛紛藉藉相亂^{하야} 六經與百家之說錯雜^{이라} 然老
師大儒猶在^{하니라} 火于秦^{하고} 黃老于漢^{하니} 其存而醇者^는 孟
軻氏而止耳^요 楊雄氏而止耳^라 及得荀氏書^{하야} 於是又
知有荀氏者也^{로라} 考其辭^면 時若不粹^나 要其歸^면 與孔
子異者鮮矣^니 抑[其]猶在軻雄之間乎^{니저}

孔子刪詩書^{하고} 筆削春秋^에 合於道者著之^{하고} 離於道
者黜去之^라 故詩書春秋無疵^{하니라} 余欲削荀氏之不合

者_{하야} 附於聖人之籍_{하노니} 亦孔子之志歟_{나저} 孟氏_는 醇
乎醇者也_요 荀與楊_은 大醇而小疵_{니라}

4-3 送王秀才序

《文苑榮華》와 《文粹》에는 모두 ‘送王墳秀才序’로 되어 있는데, 王墳과 이 序의 저작연도는 고증할 수 없다.

通篇以孟子作主하니 是退之立自己門戶라 故其文有
雄視一世氣라

吾常以爲孔子之道는 大而能博하야 門弟子不能徧觀而盡
識也라 故學焉而皆得其性之所近이러니 其後離散分處諸
侯之國하야 又各以所能授弟子하니 原遠而未益分이라

蓋子夏之學은 其後有田子方하고 子方之後는 流而爲莊
周하니라 故周之書에 喜稱子方之爲人하니라 荀卿之書에
語聖人엔 必曰孔子, 子弓이라하니라 子弓之事業不傳이요
惟太史公書弟子傳에 有姓名字曰 馯臂子弓이라 子弓受
易於商瞿하니라 孟軻師子思하고 子思之學은 蓋出曾子하
니라 自孔子沒로 群弟子莫不有書로되 獨孟軻氏之傳이
得其宗이라 故吾少而樂觀焉하니라

太原王墳이 示予所爲文에 好學孟子之所道者라 與之
言하니 信悅孟子하야 而屢贊其文辭하니라 夫沿河而下에

苟不止^면 雖有遲疾^{이나} 必至於海^{니라} 如不得其道也^면
 雖疾不止^{라도} 終莫幸而至焉^{이라} 故學者必慎其所道^{니라}
 道於楊墨老莊佛之學^{하야} 而欲之聖人之道^면 猶航斷港
 絕潢^{하야} 以望至於海也^라 故求觀聖人之道^니 必自孟
 子始^{니라} 今頃之所由^는 旣幾於知道^{하니} 如又得其船與
 楫^{하야} 知沿而不止^면 嗚呼^라 其可量也哉^아

唐荊川曰 此是立主意之文^{이니} 而緊要^가 全在好學孟
 子之所道者一句^라

4-4 論佛骨表

* 이 表는 唐 憲宗 元和 14년(81)에 韓愈가 兵部侍郎으로 있을 때 올린 것이다. 이때 한유의 나이 52세였다. 鳳翔法門寺의 護國眞身石塔 안에 釋迦의 손가락 뼈 한 마디를 간직하고서, 30년마다 한 번씩 탑을 열고 그 뼈를 꺼내었는데, 탑을 여는 해에는 풍년이 들고 백성의 생활이 안락해진다는 전설이 있었다. 이해가 마침 탑을 여는 해였기에 헌종이 宦官 杜英奇 등을 보내어 맞이해 오게 한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앞의 〈韓文公本傳〉에 보인다.

韓公以天子迎佛이 特以祈壽護國爲心이라 故其議論
亦只以福田上立說하고 無一字論佛宗旨라

臣某言_{하노이다} 伏以佛者_는 夷狄之一法耳라 自後漢時流
入中國_{하니} 上古未嘗有也_{니이다} 昔者_에 黃帝在位百年이
요 年百一十歲_며 少昊在位八十年이요 年百歲_며 顓頊在
位七十九年이요 年九十八歲_며 帝嚳在位七十年이요 年
百五歲_며 帝堯在位九十八年이요 年百一十八歲_며 帝舜
及禹年皆百歲_{니이다} 此時天下太平_{하야} 百姓安樂壽考_로
되 然而中國未有佛也_{니이다} 其後殷湯亦年百歲_요 湯孫
太戊在位七十五年이요 武丁在位五十九年이니 書史不
言其年壽所極이나 推其年數_면 蓋亦俱不減百歲_요 周文
王年九十七歲_요 武王年九十三歲_며 穆王在位百年이니
다 此時佛法亦未入中國_{하니} 非因事佛而致然也_{니이다}

漢明帝時에 始有佛法이나 明帝在位纔十八年耳요 其後
 亂亡相繼하야 運祚不長이니이다 宋齊梁陳元魏以下는 事
 佛漸謹이나 年代尤促이니이다 惟梁武帝在位四十八年이로되
 前後三度捨身施佛하고 宗廟之祭에 不用牲牢하며 晝日
 一食하되 止於菜果러니 其後竟爲侯景所逼하야 餓死臺城
 하고 國亦尋滅하니이다 事佛求福이라가 乃更得禍하니 由此觀
 之컨대 佛不足事를 亦可知矣니이다

高祖始受隋禪하야 則議除之나 當時群臣材識不遠하야
 不能深知先王之道와 古今之宜하야 推闡聖明하야 以救
 斯弊하야 其事遂止하니 臣常恨焉이니이다 伏惟睿聖文武
 皇帝陛下는 神聖英武가 數千百年已來未有倫比하야 卽
 位之初에 卽不許度人爲僧尼道士하고 又不許創立寺觀
 하니 臣常以爲高祖之志가 必行於陛下之手니이다 今縱未
 能卽行이나 豈可恣之轉令盛也잇가

今聞陛下令群僧迎佛骨於鳳翔하야 御樓以觀하고 昇入
 大內하고 又令諸寺遞迎供養이라하니 臣雖至愚나 必知陛
 下不惑於佛하야 作此崇奉하야 以祈福祥也라 直以年豐

人樂으로 徇人之心_{하야} 爲京都士庶設詭異之觀과 戲玩之具耳_라 安有聖明若此而肯信此等事哉_{잇가} 然百姓愚冥_{하야} 易惑難曉_{하니} 苟見陛下如此_면 將謂眞心事佛_{이라} 하야 皆云天子大聖_{이로되} 猶一心敬信_{이어늘} 百姓何人_{이완대} 豈合更惜身命_{가하고} 焚頂燒指_{하며} 百十爲群_{하야} 解衣散錢_{하야} 自朝至暮_히 轉相倣效_{하야} 惟恐後時_{하야} 老少奔波_{하야} 棄其業次_{하리이다} 若不卽加禁遏_{하고} 更歷諸寺_면 必有斷臂鬻身以爲供養者_{리이다} 傷風敗俗_{하야} 傳笑四方_{이니} 非細事也_라

夫佛은 本夷狄之人_{이라} 與中國言語不通_{하고} 衣服殊製_{하며} 口不言先王之法言_{하고} 身不服先王之法服_{하며} 不知君臣之義와 父子之情_{하니} 假如其身至今尚在_{하야} 奉其國命來朝京師_{라도} 陛下容而接之_{호되} 不過宣政一見_{하고} 禮賓一設_{하야} 賜衣一襲_{하야} 衛而出之於境_{이요} 不令惑衆也_어 든 況其身死已久_{하고} 枯朽之骨은 凶穢之餘_니 豈宜令入宮禁_{이리잇가}

孔子曰 敬鬼神而遠之_라하고 古之諸侯行弔於其國_에 尚令

巫祝先以桃茆祓除不祥然後에 進弔어늘 今無故取朽穢之
 物_{하야} 親臨觀之_{호되} 巫祝不先_{하고} 桃茆不用_{이로되} 群臣不言
 其非_{하고} 御史不舉其失_{하니} 臣實恥之_{하노이다} 乞以此骨付
 之有司_{하야} 投諸水火_{하야} 永絕根本_{하야} 斷天下之疑_{하고}
 絕後代之惑_{하야} 使天下之人知大聖人之所作爲가 出於
 尋常萬萬也_면 豈不盛哉_며 豈不快哉_{잇가}

佛如有靈_{하야} 能作禍崇(수)_면 凡有殃咎가 宜加臣身_{하리이}
 다 上天鑑臨_{하니} 臣不怨悔_{로이다} 無任感激懇悃之至_{하야}
 謹奉表以聞_{하노이다}

5. 장소, 그 의미의 기록

5-1 處州孔子廟碑

唐나라 貞觀 연간에 각 州縣에 조서를 내려 모두 孔子의 廟를 세우게 하였고, 開元 27년(73 8월에 孔子에게 추가로 ‘文宣王’이란 諡號를 올리니, 공자의 지위가 크게 높아졌다. 이 碑文에는 年月日이 기재되지 않았는데, 다른 本에는 “朝散大夫國子祭酒賜紫金魚袋韓愈撰”이란 글자가 있다. 한유가 국자 좌주가 된 것은 元和 15년(820) 가을이었다.

序孔子祀典之尊崇處入骨이라 孔子廟碑는 漢以來當
屬昌黎第一이라

自天子至郡邑守長^히 通得祀而徧天下者^는 惟社稷與
孔子爲然이라 而社祭土^{하고} 稷祭穀^{호되} 句龍與棄乃其佐
享^나 非其專主^요 又其位所不屋而壇이니 豈如孔子用王
者事^{하야} 巍然當座^{하야} 以門人爲配^{하고} 自天子而下가 北
面跪祭^{호되} 進退誠敬^{하야} 禮如親弟子者^{리오} 句龍棄以功이
요 孔子以德이니 固自有次第哉^{나저} 自古多有以功德得
其位者가 不得常祀나 句龍棄孔子^는 皆不得位而得常
祀라 然其祀事가 皆不如孔子之盛이라 所謂生人以來로
未有如孔子者^는 其賢過於堯舜遠矣나 此其效歟^{나저}
郡邑皆有孔子廟나 或不能修事^{하고} 雖設博士弟子나 或役

於有司_{하야} 名存實亡_{하야} 失其所業_{이로되} 獨處州刺史_{鄴侯}
 李繁至官_에 能以爲先_{하야} 旣新作孔子廟_{하고} 又令工改
 爲顏子至子夏十人像_{하고} 其餘六十子_와 及後大儒公羊
 高, 左丘明, 孟軻, 荀況, 伏生, 毛公, 韓生, 董生, 高
 堂生, 揚雄, 鄭玄等數十人_을 皆圖之壁_{하니라} 選博士弟
 子_{호되} 必皆其人_{하고} 又爲置講堂_{하야} 教之行禮_{하야} 肄習其
 中_{하니라} 置本錢, 廩米_{하야} 令可繼處以守_{하니라} 廟成_에 躬率
 吏及博士弟子入學_{하야} 行釋菜禮_{하니} 耆老歎嗟_{하고} 其子
 弟皆興於學_{하니라} 鄴侯尚文_{하야} 其於古記無不貫達_{이라} 故
 其爲政_에 知所先後_{하니} 可歌也已_{로다} 乃作詩曰

惟此廟學_은 鄴侯所作_{이라} 厥初庫下_{하야} 神不以宇_{하고} 生師
 所處_도 亦窘寒暑_라 乃新斯宮_{하니} 神降其獻_{이라} 講讀有
 常_{하니} 不誠用勸_{이라} 揭揭元哲_{이여} 有師之尊_{이요} 群聖嚴
 嚴_{하니} 大法以存_{이라} 像圖孔肖_가 咸在斯堂_{하니} 以瞻以儀_하
 야 俾不或忘_{하라} 後之君子_여 無廢成美_{하라} 琢詞碑石_{하야}
 以贊攸始_라

5-2 黃陵廟碑

元和 14년(81 봄에 한유가 佛骨을 맞이하는 일을 諫하였다가 憲宗의 미움을 사서 潮州刺史로 左遷되었다. 赴任 길에 岳州를 지나다가 黃陵廟로 가서 神靈의 도움을 받았다.

同年 10월에 한유는 조주를 떠나 袁州刺史로 轉任되었고, 15년 10월에 부름을 받고 京성으로 와서 國子祭酒에 제수되었다. 이때 한유는 신령이 保佑해준 은혜에 감사하여, 한 편의 祭文을 써서 張德一을 파견해 악주 황릉묘로 가서 湘君과 湘夫人께 제사 지내게 하고, 자기의 돈 10만 냥을 가지고 가서 廟宇를 重修하게 하였다.

此文用爾雅說文體하니 別是一調라

湘旁有廟하니 曰黃陵이라 自前古立하야 以祠堯之二女舜二妃者라 庭有石碑나 斷裂分散在地하야 其文剝缺이라 考圖記言컨대 漢荊州牧劉表景升之立이요 題曰湘夫人碑라하니라 今驗其文하니 乃晉太康九年이요 又其額曰虞帝二妃之碑라하니 非景升立者라

秦博士對始皇帝云 湘君者는 堯之二女, 舜妃者也라 劉向, 鄭玄도 亦皆以二妃爲湘君이라 而離騷, 九謠에 旣有湘君하고 又有湘夫人이라 王逸之解에 以爲湘君者는 自其水神이요 而謂湘夫人은 乃二妃也라 從舜南征三苗不及하고 道死沅湘之間하니라 山海經曰 洞庭之山에 帝

之二女居之^{라하니라} 郭璞疑二女者帝舜之后^니 不當降小
 水爲其夫人^{이라하고} 因以二女爲天帝之女^{라하니라} 以余考
 之^{컨대} 璞與王逸俱失也^라 堯之長女娥皇爲舜正妃^라 故
 曰君^{이요} 其二女女英^은 自宜降曰夫人也^라 故九謠辭謂
 娥皇爲君^{하고} 謂女英帝子^{하니} 各以其盛者推言之也^라
 禮有小君, 君母^{하니} 明其正自得稱君也^라 書曰 舜陟方
 乃死^{라하야늘} 傳謂舜昇道南方以死^{라하고} 或又曰 舜死塋
 蒼梧^{하니} 二(女)[妃]¹從之不及^{하야} 溺死沅湘之間^{이라하니}
^라 余謂竹書紀年¹에 帝王之沒^을 皆曰陟^{이라하니} 陟^은 昇也
^니 謂昇天也^라 書曰 殷禮陟配天¹^{이라하니} 言以道終^{하야} 其
 德協天也^라 書紀舜之沒云陟者^가 與竹書周書同文也^라
 其下言方乃死者^는 所以釋陟爲死也^라 地之勢東南下^하
^니 如言舜南巡而死^면 宜言下方^{이요} 不得言陟方也^라 以
 此謂舜死塋蒼梧^{하고} 於時二妃從之不及而溺者^는 皆不
 可信^{이라} 二妃旣曰以謀語舜^{하야} 脫舜之厄^{하야} 成舜之聖
^{하니} 堯死而舜有天下^{하야} 爲天子^는 二妃之力^{이니} 宜常爲
 神^{하야} 食民之祭^라 今之渡湖江者^는 莫敢不進禮廟下^라
 元和十四年春^에 余以言事得罪^{하야} 爲潮州刺史^{하니라} 其

地於漢南海之揭陽으로 厲毒所聚라 懼不得脫死하야 過廟
 而禱之니라 其冬에 移袁州刺史하니라 明年九月에 拜國子
 祭酒하니라 使以私錢十萬抵岳州하야 願易廟之圯桷腐瓦
 於刺史王堪하니라 長慶元年에 刺史張愔自京師往하니 與
 愔故善이라 謂曰 丐我一碑石이면 載二妃廟事하고 且令後
 世知有子名하리라 愔曰 諾이라하다 旣至州에 報曰 碑謹具
 라하야늘 遂篆其事俾刻之하니라

5-3 燕 **喜亭記**

이 記文은 한유가 陽山縣令으로 있던 貞元 20년(80)에 지은 것이다.

淋漓指畫之態가 是得記文正體요 而結局處特高라
歐公文大略有得於此하니라

太原王弘中在連州에 與學佛人景常, 元慧游하니라 異日
에 從二人者하야 行于其居之後하야 丘荒之間에 上高而
望라가 得異處焉하니라 斬茅而嘉樹列하고 發石而清泉激이
라 輦糞壤하고 燔樵翳하야 却立而視之하니 出者突然成丘하고
陷者呀然成谷하며 窪者爲池하고 而缺者爲洞하야 若有鬼
神異物陰來相之하니라 自是弘中與二人者晨往而夕忘
歸焉이러니 乃立屋以避風雨寒暑하니라

旣成에 愈請名之하야 其丘曰竢德之丘라하니 蔽於古而顯於
今하야 有竢之道也라 其石谷曰謙受之谷이라하고 瀑曰振鷺
之瀑이라하니 谷言德이요 瀑言容也라 其土谷曰黃金之谷이라
하고 瀑曰秩秩之瀑이라하니 谷言容이요 瀑言德也라 洞曰寒
居之洞이라하니 志其入時也라 池曰君子之池라하니 虛以鍾
其美하고 盈以出其惡也라 泉之源曰天澤之泉이라하니 出高

而施下也_라 合而名之以屋曰燕喜之亭_{이라하니} 取詩所謂魯侯燕喜者_{하니} 頌也_라

於是州民之老_가 聞而相與觀焉_{하고} 曰吾州之山水名天下_나 然而無與燕喜者比_{니라} 經營於其側者相接也_{로되} 而莫直_(치)其地_{하니} 凡天作而地藏之_{하야} 以遺其人乎_아

弘中自吏部郎貶秩而來_에 次其道途所經_{하니} 自藍田入商洛_{하야} 涉浙湍_{하야} 臨漢水_{하고} 升峴首以望方城_{하며} 出荊門_{하야} 下岷(山)[江]_{하야} 過洞庭_{하야} 上湘水_{하고} 行衡山之下_{하야} 繇_郴踰嶺_{하니라} 蝮狖所家_요 魚龍所宮_{이라} 極幽遐_瑰詭之觀_{하니} 宜其於山水_飫聞而厭見也_{로되} 今其意乃若不足_{이라} 傳曰 智者樂_(요)水_{하고} 仁者樂山_{이라하니} 弘中之德_이 與其所好_로 可謂協矣_{로다} 智以謀之_{하고} 仁以居之_{하니} 吾知其去是而羽儀於天朝也不遠矣_{로다} 遂刻石以記_{하노라}

6. 가장 긴 이별

6-1 祭十二良文

貞元 19년(80 十二郎을 위해 지은 제문이다. 十二郎은 바로 韓愈의 조카 韓老成이다. 韓介의 아들로 出系하여 伯父 韓會의 嗣子가 되었다. 한유의 부친 韓雲卿은 아들 셋을 두었는데, 맏이는 한회, 둘째는 한개, 막내는 한유이다. 한유는 어려서 부모를 여의고 한회 부부의 손에 자란 연유로 한노성과 함께 생활하며 고향을 함께하였기에 叔姪 사이의 정이 특별히 친밀하였다.

이 祭文은 幼年時節을 함께 했던 애뜻한 감정과, 살았을 때에 있었던 잠시 동안의 이별과 죽어서 영원히 이별하게 된 悲哀를 서술한 감정이 진지하고 沈痛하여 한마디 한마디가 모두 肺腑에서 우러나왔고, 筆致가 旋回하였기 때문에 문장의 기세도 일정한 범위 안을 맴돌았다.

通篇情意刺骨^{하야} 無限悽切이라 祭文中千年絶調라

年月日^에 季父愈聞汝喪之七日^{에야} 乃能銜哀致誠^{하고}
使建中遠具時羞之奠^{하야} 告汝十二郎之靈^{하노라}

嗚呼^라 吾少孤^{하야} 及長^{에도} 不省所怙^{하고} 惟兄嫂是依^라
中年兄沒南方^에 吾與汝俱幼^{로되} 從嫂歸葬河陽^{하니라} 旣
又與汝就食江南^에 零丁孤苦^{하야} 未嘗一日相離也^{니라} 吾
上有三兄^{이나} 皆不幸早世^{하야} 承先人後者^는 在孫惟汝^요 在
子惟吾^{하여} 兩世一身^{이니} 形單影隻^{이라} 嫂常撫汝指吾而
言曰 韓氏兩世^가 惟此而已^{라하니라} 汝時尤小^{하니} 當不復

記憶이어나와 吾時雖能記憶이나 亦未知其言之悲也_{로라}

吾年十九에 始來京城_{하고} 其後四年에 而歸視汝_{하니라} 又
 四年에 吾往河陽省墳墓에 遇汝從嫂喪來葬_{하니라} 又二
 年에 吾佐董丞相于汴州에 汝來省吾_{하야} 止一歲_라가 請歸
 取其孥_{러니} 明年에 丞相薨_{하야} 吾去汴州_{하니} 汝不果來_{하니}
 라 是年에 吾佐戎徐州_{하야} 使取汝者始行이나 吾又罷去_하
 니 汝又不果來_{하니라} 吾念汝從於東_{이라}도 東亦客也니 不
 可以久_{하니라} 圖久遠者_나 莫如西歸_{하야} 將成家而致汝니
 라 嗚呼_라 孰謂汝遽去吾而歿乎아 吾與汝俱少年_{하니} 以
 爲雖暫相別이나 終當久與相處_{호라} 故捨汝而旅食京師_하
 며 以求斗斛之祿_{하니라} 誠知其如此_면 雖萬乘之公相_{이라}
 도 吾不以一日輟汝而就也_라

去年에 孟東野往에 吾書與汝曰 吾年未四十에 而視茫
 茫_{하고} 而髮蒼蒼_{하며} 而齒牙動搖_라 念諸父與諸兄은 皆
 康強而早世_{하니} 如吾之衰者_가 其能久存乎아 吾不可去
 하고 汝不肯來_{하니} 恐旦暮死_{하야} 而汝抱無涯之戚也_{러니} 孰
 謂少者歿而長者存_{하고} 强者夭而病者全乎아 嗚呼_라 其信

然耶아 其夢耶아 其傳之非其眞耶아 信也_ㄴ덴 吾兄之盛德
 而夭其嗣乎아 汝之純明而不克蒙其澤乎아 少者强者而
 夭歿_{하고} 長者衰者而存全乎아 未可以爲信也_{로다} 夢也_요
 傳之非其眞也_ㄴ덴 東野之書와 耿蘭之報가 何爲而在吾
 側也아 嗚呼_라 其信然矣_{로다} 吾兄之盛德而夭其嗣矣_요
 汝之純明宜業其家者가 不克蒙其澤矣_라 所謂夭者誠
 難測_{이요} 而神者誠難明矣_며 所謂理者不可推_요 而壽者
 不可知矣_{로다}

雖然_{이나} 吾自今年來_로 蒼蒼者或化而爲白矣_요 動搖者
 或脫而落矣_라 毛血日益衰_{하고} 志氣日益微_{하니} 幾何不
 從汝而死也_{리오} 死而有知_면 其幾何離아 其無知_면 悲不
 幾時_요 而不悲者無窮期矣_{리라} 汝之子始十歲_요 吾之子
 始五歲_라 少而强者不可保_{어든} 如此孩提者_에 又可冀其
 成立耶아 嗚呼哀哉_라 嗚呼哀哉_라

汝去年書云 比得軟脚病_{하야} 往往而劇_{이라하야늘} 吾曰 是
 疾也_는 江南之人_은 常常有之_{라하고} 未始以爲憂也_{로라} 嗚
 呼_라 其竟以此而殞其生乎아 抑別有疾而至斯乎아 汝

之書는 六月十七日也요 東野云 汝歿以六月二日이요 耿
 蘭之報는 無月日이라 蓋東野之使者는 不知問家人以月
 日이요 如耿蘭之報는 不知當言月日이라 東野與吾書에
 乃問使者하니 使者妄稱以應之耳라하니라 其然乎아 其不
 然乎아

今吾使建中祭汝하고 弔汝之孤與汝之乳母하노라 彼有食
 可守以待終喪이면 則待終喪而取以來어니와 如不能守以
 終喪이면 則遂取以來하고 其餘奴婢에 竝令守汝喪케호리라
 吾力能改葬이니 終葬汝於先人之兆하리라 然後惟其所願
 하리라

嗚呼라 汝病吾不知時하고 汝歿吾不知日이라 生不能相
 養以共居하고 歿不得撫汝以盡哀라 斂不憑其棺하고 窆不
 臨其穴이라 吾行負神明而使汝夭하니라 不孝不慈하야 而不
 得與汝相養以生하고 相守以死라 一在天之涯하고 一在
 地之角이라 生而影不與吾形相依하고 死而魂不與吾夢相
 接이라 吾實爲之하니 其又何尤리오 彼蒼者天이여 曷其有極가
 自今已往으로 吾其無意於人世矣니 當求數頃之田於伊

穎之上_{하야} 以待餘年_{하야} 教吾子與汝子_{하야} 幸其成_{하고}
 長吾女與汝女_{하야} 待其嫁_{하리라} 如此而已_라 嗚呼_라 言有
 窮而情不可終_{하니} 汝其知也耶_아 其不知也耶_아 嗚呼哀哉
 라 尚饗

6-2 祭柳厚文

이 祭文은 元和 15년(820)에 韓愈가 袁州刺史로 있을 때에 지은 것이다. 柳宗元이 元和 14년(81 11월 8일에 柳州에서 逝去했다는 소식을 접한 韓愈는 매우 슬퍼하며 이 祭文을 지었고, 이듬해에 또 〈柳子厚墓誌銘〉(본서 권1을 지어 柳宗元의 일생을 비교적 자세히 서술하였다.

昌黎誌子厚墓나 相知之誼는 似不如祭文이라

維年月日에 韓愈謹以清酌庶羞之奠으로 祭于亡友柳子厚之靈하노라

嗟嗟子厚여 而至然耶아 自古莫不然하니 我又何嗟리오
人之生世가 如夢一覺하니 其間利害를 竟亦何校오 當其
夢時에 有樂有悲나 及其既覺에 豈足追惟오

凡物之生에 不願爲材하나니 犧罇青黃은 乃木之災라 子之
中棄는 天脫鬲(첩)羈요 玉珮瓊琚는 大放厥辭라 富貴無能
하야 磨滅誰記아 子之自著는 表表愈偉라 不善爲斲은 血
指汗顔이나 巧匠旁觀하며 縮手袖間이라 子之文章은 而不用
世하야 乃令吾徒로 掌帝之制로다 子之視人에 自以無前이
나 一斥不復하고 群飛刺天이라

嗟嗟子厚여 今也則亡이라 臨絕之音이 一何琅琅가 徧告
 諸友하야 以寄厥子하고 不鄙謂余하야 亦託以死라 凡今之
 交는 觀勢厚薄이라 余豈可保하야 能承子託가 非我知子라
 子實命我니라 猶有鬼神하니 寧敢遺墮아 念子永歸하야 無
 復來期하니 設祭棺前하야 矢心以辭하노라 嗚呼哀哉라 尚
 饗

6-3 柳宗元墓誌銘

貞元 21년(805)에 唐 德宗이 昇遐하고 順宗이 즉위하고서 永貞으로 改元하였다. 順宗이 병으로 親政할 수 없게 되자, 王叔文이 執政하여 韋執誼를 尙書左丞 同平章事로, 柳宗元을 禮部員外郎으로 삼고서 政治改革을 시도하였으나, 宦官 俱文珍 등이 順宗을 僞박해 退位시키고 憲宗을 擁立하였다. 이로 인해 王叔文 등은 貶職되어 地方官으로 내쫓겼다. 王叔文은 다음 해에 誅殺되었다.

이 墓誌銘은 韓愈가 袁州刺史로 量移되었던 元和 15년(820)에 유종원을 위해 지은 것이다. 子厚는 유종원(773~81)의 字이다.

昌黎稱許子厚處는 尺寸斤兩不放一步라

子厚는 諱宗元이라 七世祖慶은 爲拓跋魏侍中하야 封濟陰(侯)[公]하나라 曾伯祖奭은 爲唐宰相하야 與褚遂良韓瑗俱得罪武后하야 死高宗朝하나라 皇考諱鎮은 以事母로 棄太常博士하고 求爲縣令江南하나라 其後以不能媚權貴로 失御史라가 權貴人死에 乃復拜侍御史하나라 號爲剛直하고 所與游皆當世名人이라

子厚는 少精敏하야 無不通達이라 逮其父時하야 雖少年이나 已自成人하야 能取進士第하야 嶄然見頭角하니 衆謂柳氏有子矣라하나라 其後以博學宏詞授集賢殿正字하나라 僞傑廉悍하야 議論證據今古하고 出入經史百子하야 踔厲風發

하야 率常屈其座人하니 名聲大振하야 一時皆慕與之交하니라
諸公要人이 爭欲令出我門下하야 交口薦譽之하니라

貞元十九年에 由藍田尉拜監察御史하니라 順宗卽位하야 拜
禮部員外郎하니라 遇用事者得罪하야 例出爲刺史러니 未至
에 又例貶永州司馬하니라 居閑에 益自刻苦하고 務記覽하야
爲詞章하니 汎濫停蓄하야 爲深博無涯涘하고 而自肆於山
水間하니라 元和中에 嘗例召至京師라가 又偕出爲刺史러
니 而子厚得柳州하니라 旣至에 歎曰 是豈不足爲政邪(야)아
하고 因其土俗하야 爲設教禁하니 州人順賴하니라 其俗以男女
質錢하되 約不時贖하야 子本相佯면 則沒爲奴婢하니라 子厚與
設方計하야 悉令贖歸하고 其尤貧力不能者는 令書其傭하야
足相當이면 則使歸其質 하니라 觀察使下其法於他州하니 比
一歲하야 免而歸者且千人이라 衡湘以南爲進士者가 (悉)
[皆]以子厚爲師하니라 其經承子厚口講指畫(회)爲文詞者는
悉有法度可觀이라

其召至京師而復爲刺史也에 中山劉夢得禹錫亦在遣中하
야 當詣播州하니라 子厚泣曰 播州非人所居라 而夢得親在

堂_{하니} 吾不忍夢得之窮_{하야} 無辭以白其大人_{이요} 且萬無母
 子俱往理_{라하고} 請于朝_{하야} 將拜疏_{하야} 願以柳易播_{하노니}
 雖重得罪_{라도} 死不恨_{이라하니라} 遇有以夢得事白上者_{하야}
 夢得於是改刺連州_{하니라} 嗚呼_라 士窮乃見節義_{어늘} 今夫
 平居里巷相慕悅_{하고} 酒食游戲相徵逐_{하며} 詡詡強笑語以
 相取下_{하고} 握手出肺肝相示_{하며} 指天日涕泣_{하며} 誓生死
 不相背負_{하니} 眞若可信_{이나} 一旦臨小利害_가 僅如毛髮
 比_{라도} 反眼若不相識_{하야} 落陷穽不一引手救_{하고} 反擠之
_{하며} 又下石焉者_가 皆是也_라 此宜禽獸夷狄所不忍爲_{어늘}
 而其人自視以爲得計_나 聞子厚之風_{이면} 亦可以少愧矣
 리라

子厚前時少年_에 勇於爲人_{하야} 不自貴重顧藉_{하고} 謂功業
 可立就_라 故坐廢退_{하니라} 旣退_에 又無相知有氣力得位者
 推挽_{이라} 故卒死於窮裔_{하야} 材不爲世用_{하고} 道不行於時
 也_{하니라} 使子厚在臺省時_에 自持其身_을 已能如司馬刺
 史時_면 亦自不斥_{이요} 斥時_에 有人力能舉之_면 且必復用
 不窮_{이라} 然子厚斥不久_{하고} 窮不極_{이면} 雖有出於人_{이라도}
 其文學詞章必不能自力_{하야} 以致必傳於後如今無疑也

라 雖使子厚得所願_{하야} 爲將相於一時_{라도} 以彼易此_면
孰得孰失_을 必有能辨之者_{리라}

子厚以元和十四年十一月八日卒_{하니} 年四十七_{이라} 以
十五年七月十日歸葬萬年先人墓側_{하니라} 子厚有子男
二人_{하니} 長曰周六_은 始四歲_요 季曰周七_은 子厚卒乃生
_{이라} 女子二人_은 皆幼_{하니라} 其得歸葬也_에 費皆出觀察使
河東裴君行立_{하니라} 行立有節槩_{하야} 重然諾_{하야} 與子厚
結交_{하니라} 子厚亦爲之盡_{이러니} 竟賴其力_{하니라} 葬子厚於
萬年之墓者_는 舅弟盧遵_{이라} 遵_은 涿人_{으로} 性謹順_{하고} 學
問不厭_{하니라} 自子厚之斥_{으로} 遵從而家焉_{하고} 逮其死不
去_{하니다} 既往葬子厚_에 又將經紀其家_{하니} 庶幾有始終者
_라 銘曰

是惟子厚之室_{이라} 旣固旣安_{하니} 以利其嗣人_{이라}